

한국해양수산개발원편, 『독도사전』, 2011.

현대송, 「영토문제 넘어서기: 일본사에서 보는 '독도 문제'의 해법」,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 2012년도 영남대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2.10.25.

##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박 병 섭

### 1. 머리말

일본은 메이지(明治)시대에 독도의 소속을 판단할 기회가 서너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870년 외무성 관료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의 조사였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내탐서』로 약칭) 안에 제목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이 있다. 다케시마, 혹은 이소타케시마(磯, 磯竹島)는 울릉도를 말하며 마쓰시마는 독도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 별책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對州朝鮮交際取調書)』(『취조서』로 약칭)가 첨부됐는데, 일본 연구자들은 거의 이 『취조서』를 간과, 혹은 무시하고 『내탐서』를 폄하했다. 다이슈는 쓰시마번(對馬藩)을 가리킨다. 모리야마 등은 1690년대의 '겐로쿠 다케시마일건(元祿竹島一

\* 본고는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2호(2012)에 가필했음.

件), 즉 울릉도쟁계를 충분히 조사한 결과를 『취조서』에 썼다. 따라서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논하려면 반드시 『취조서』를 보아야 하니, 본고에서 이 내용을 밝힌다.

두 번째로 독도의 소속이 문제가 된 것은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지적(地籍) 편찬이 문제가 된 1876~77년이었다. 일본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내무성의 조사를 바탕으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을 1877년에 내렸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독도라고 해석되고 왔으나, 최근에 일본에서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를 비롯해 ‘외 일도’는 울릉도라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나타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키하라 다카시(杉原隆)는 태정관지령서 안의 중요 자료를 무시하고, 훗날의 자료를 인용해 ‘외 일도’는 울릉도라고 주장했다.<sup>1)</sup> 또한,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예전에는 ‘외 일도’는 독도라고 보았으나,<sup>2)</sup> 최근에는 울릉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sup>3)</sup> 이들을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등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을 다른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무성 및 태정관이 독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은 있었으나,<sup>4)</sup>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본고에서 내무성 사료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 관찬지지, 관찬지도 등을 통해 내무성 등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세 번째로 독도의 소속이 문제가 된 것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리양코도 영토 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

1904년 및 1905년이였다. 청원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리양코도(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1905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며, 울도군 관할의 섬 ‘석도’였다. 게다가 후술하는 김수희의 연구에 따르면 1895년경부터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돌섬(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돌섬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어민들의 표류와 연결해 생각한다.

1905년에 독도를 관할하게 된 시마네현(島根縣)은 다음 해에 울릉도·독도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풍파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상륙했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이는 구실이며 그들은 처음부터 울릉도도 조사할 계획이었다. 본고에서 그들의 목적을 밝힌다. 그들은 울도군수를 방문해 독도가 일본영토로 됐다고 고했다. 이에 관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아무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여태까지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후술하는 홍정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독도 점령의 부당성을 일본 통감부 산하 이사청에 지적한 듯하다. 이때에 일본은 독도의 소속을 검토한 것 같다. 통감부 통신관리국장은 울도군에 관해 내부에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내부는 1900년 칙령 41호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칙령이 말하는 석도가 독도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내부의 회답에 울도군의 크기로서 “동서 60리 오 남북 40리니 합(合) 200여 리”라고 썼는데, 시모조 마사오는 이 범위 안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합 200여리’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락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합 200여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 독도가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본고에서 생각한다.

1) 杉原隆, 「浅井村土族大屋兼助他一名の「松島開拓願」について」, 『郷土石見』 83호, 2010, 23쪽.

2)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国立国会図書館, 1994, 4쪽 및 제2판(1996), 5쪽.

3) 위의 책, 제3판(2011), 5쪽.

4)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号, 2008, 33~36쪽.

## 2.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조사

메이지 초년에 일본 정부는 독도의 소속을 처음으로 판단할 기회가 있었다. 이 경위를 살펴본다. 에도(江戸)시대에 조선과의 외교는 오로지 쓰시마번이 맡았는데, 메이지시대에 들어서 신정부는 조선과의 외교를 직접 다루기 위해, 천황 친정(天皇親政)을 알리는 서계를 조선 정부로 보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서계 내용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타개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조선을 내탐하기 위해 외무성에 출사한 모리야마 시게루,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3명을 쓰시마 및 부산에 있는 쓰시마이즈하라번(對馬嚴原藩, 쓰시마번으로 약칭)의 왜관으로 파견했다. 조사 및 내탐 내용은 외무성이 1869년에 미리 「조선에 파견될 자가 알아 들 사항의 하명 안」<sup>5)</sup>을 태정관에 제출해 승인을 얻었다. 단, 이 안에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모리야마 등은 1869년 12월에 요코하마항(橫濱港)을 출발하고, 다음 해 1월 28일에 쓰시마에 도착해 쓰시마번의 조사를 마치고, 2월 22일에 부산 왜관에 도착해 조선을 내탐했다. 그들은 하명된 조사 사항 외에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이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그들이 쓰시마번과 조선과의 통교의 역사를 조사하려면 먼저 기본 자료인 『조선 통교 대기(朝鮮通交大紀)』 등을 읽게 되는데, 그렇다면 1690년대에 7년 동안 쓰시마번과 조선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된 ‘젠로쿠 다케시마일건’을 당연히 알게 되니, 이 사건을 추가로 조사한 듯하다. ‘젠로쿠 다케시마일건’이란 1693년에 다케시마(울릉도)로 출어한 호키국 요나고(伯耆国米子) 상인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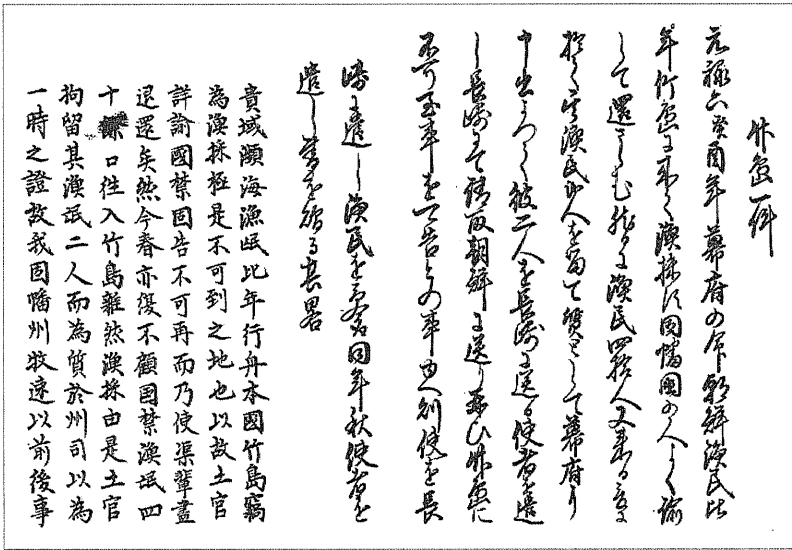
문의 사공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중이었던 안용복과 박어둔 2명을 일본으로 연행해 돛토리번으로 인도한 일을 계기로 시작된 쓰시마번과 조선과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 울릉도쟁계를 말한다. 모리야마 등은 이 사건의 경위를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 안에 「다케시마일건」(그림 1)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썼다. 『취조서』가 『내탐서』에 첨부됐다는 것은 『일본외교문서』에 밝혀져 있다.<sup>6)</sup> 그러나 일본 연구자들은 『취조서』를 거의 간과 혹은 무시하고 『내탐서』를 폄하하고 있다. 원래 『내탐서』는 보고용으로 『취조서』를 요약한 것이니, 『내탐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당연하다. 따라서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논하려면 반드시 『취조서』를 보아야 하는데 『취조서』에 언급한 연구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 『취조서』는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니,<sup>7)</sup>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취조서』안의 「다케시마일건」은 숙종기에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왕복된 울릉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다음의 서함 6통을 중심으로 기술됐다.

1. 다케시마를 침범한 조선어민을 송환하고 조선어민의 출어 금지를 요구하는 쓰시마번의 서함(그림 1의 뒷부분)
2. 일본의 처치에 감사하고 울릉도 도해 금지를 알리는 조선의 서함
3. 조선의 서함에서 글자 ‘울릉’의 삭제를 요구하는 쓰시마번의 서함
4.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조선어민의 구속을 항의하는 조선의 서함
5. 최종적으로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조선의 서함
6. 다케시마일건의 해결을 축하하는 쓰시마번의 서함

<sup>6)</sup>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제3권, 巖南堂, 1938, 138쪽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本文書(『内探書』, 注)ノ附屬書タル別冊「對州朝鮮交際取調書」ハ 省略ス”

<sup>7)</sup>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세아역사자료센터(<http://www.jacar.go.jp/>) 검색 Reference code; B03030124800.

<sup>5)</sup> 外務省, 「朝鮮へ被差遣候もの心得方御達之案」, 『日本外交文書』 제2권, 巖南堂, 1938, 265쪽.



〈그림 1〉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 부속된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 안에 기록된 「다케시마일건」

이들은 모두 쓰시마번 사료 『선린통교(善隣通交)』五에 수록된 「고다케시마일건사고(告竹島一件事考)」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다케시마일건을 충분히 조사한 결과를 『내탐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

이 건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의 이웃에 있는 섬으로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 다케시마의 건에 관해서는 겐로쿠(元禄) 때의 왕복서함,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 겐로쿠 이후는 잠시 동안 서류를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지금은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어졌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연히 자란다. 그 외에 수산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들었다.

밑줄은 필자가 그었는데 이는 1차 자료, 즉 『공문 별록(公文別録)』<sup>8)</sup> 원문에는 있지만, 2차 자료, 즉 『조선사무서(朝鮮事務書)』<sup>9)</sup> 및 이를 인용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sup>10)</sup>에는 빠진 부분이다. 이 때문에 2차 자료만을 본 연구자들은 모리야마 등이 겐로쿠기의 자료를 잘 조사한 것을 간과하고 보고서를 평가했다. 예를 들어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적었다.<sup>11)</sup> 그러나 다케시마에 관한 시말은 밑줄이 밝힌 “겐로쿠 때의 왕복서함·절차 서류의 사본”에 있으며, 이 사본들을 바탕으로 다케시마일건을 요약한 것이 별책 『취조서』 안의 제목 「다케시마일건」이다. 이 자료를 호리 가즈오도 간과했는지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에 대해 “이것도 겐로쿠기의 ‘다케시마일건’에 있어서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양도됐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보고였다”고 주장했다.<sup>12)</sup> 그러나 별책 『취조서』의 「다케시마일건」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면밀한 조사서였다.

그런데 별책 안의 「다케시마일건」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된 시말은 잘 기록되고 있으나,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모리야마 등은 『내탐서』에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고 썼는데, 역시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는 쓰시마번 자료에는 아주 적다. 간신히 간단한 설명이 『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에 있다. 이에 따르면 막부가 다케시마일건에 관련해 쓰시마번에게 다케시마 방향에 따로 섬이 있는지 질문했더니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근처

8) 『公文別録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第一卷(国立公文書館所蔵). 밑줄의 원문은 “元禄度之往復手續書 写の通二有之”.  
 9) 外務省, 『朝鮮事務書』第二卷(卷之四).  
 10) 外務省, 『日本外交文書』第三卷, 137쪽.  
 11)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4쪽. 제2판(1996)과 제3판(2011)도 같음.  
 12)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24호, 1987, 104쪽.

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건너가고 어로를 한다는 것을 아랫것들의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다.<sup>13)</sup> 모리야마 등은 이 기록을 보고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독도)’를 다케시마에 부속된 섬으로 보고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로 됐다고 이해했을까? 혹은 그 위에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 등을 조사한 뒤에 결론을 내렸을까? 이훈이 발굴해,<sup>14)</sup> 이케우치 사토시가 재해석을 한<sup>15)</sup> 종가문서에 따르면, 에도막부는 ‘텐포(天保) 다케시마일건’에 관련해 1836년에 쓰시마번의 에도번저(江戸藩邸)를 불러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해 “두 섬은 모두 조선의 울릉도인지,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라는 것은 조선 밖의 땅인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1)다케시마는 강원도의 울릉도이며, (2)겐로쿠기에 쓰시마번이 막부의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건너가고 어업을 했다는 것이 아랫것들의 풍설입니다”고 대답한 것을 설명하고, (3)마쓰시마도 “다케시마와 같이 일본인이 건너가고 어업을 한 일에 관해 도해가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를 단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고 회답했다.<sup>16)</sup> 쓰시마 번도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단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고 회답한 것은 도해가 금지됐는지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당연히 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직후에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본 「다케시마 방각

도(竹島方角圖)」를 바탕으로 이와 비슷한 그림지도를 작성했으니,<sup>17)</sup> 막부도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했던 것이다. 이런 종가문서를 모리야마 등이 실제로 보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쓰시마번에서는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로 보고 있었으며, 이 인식이 모리야마 등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 결과, 모리야마 등 조사단 전원이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의 유무보다 “다케시마 이웃에 있는 섬”이라는 인식, 혹은 간단한 기록만으로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판단한 것이다.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의 이웃에 있다면 쉽게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의 부속 섬, 혹은 다케시마와 한 쌍을 이루는 섬으로 여겨질 것이다. 게다가 마쓰시마라는 이름은 소나무 섬을 의미하는데, 이 섬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쓰시마라고 불린 것은 다케시마, 즉 대나무 섬과 한 쌍을 이룬다는 생각에 유래한다. 일본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는 아주 운수 좋은 한 쌍으로 여겨져 있다. 하여간 모리야마 등 조사단은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을 때에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가 없어도 무방했다. 그만큼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의 속도, 혹은 다케시마와 한 쌍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었다. 모리야마 등의 보고서는 태정관에게도 당연히 제출됐으니,<sup>18)</sup> 태정관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을 것이다.

결국, 메이지 신정부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본 에도막부의 인식을 이어받은 것을 밝힌 것이 『내탐서』 및 『취조서』이며, 이들은 결코 단순

13) 『竹島紀事』元禄 8年 10月.

“竹島之近所に松島与申島御座候而 彼所江も罷越候而漁仕所之由 下々之風説に承候”

14) 이훈, 「조선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중판, 지성의 샘, 2005, 43쪽.

15) 池内敏, 「17~19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756호, 2001, 30쪽;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82쪽.

16) 「대마도 종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목록 #4013.

“竹島同様 日本人罷渡致漁候儀 御停止の島とは被考候得共 差極候儀は答仕兼候”

17) 박병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도서출판 지성인, 2012, 171-173쪽;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2012, 27~30쪽.

18) 외무성은 「조선에 파견될 자가 알아 둘 사항의 하명 안」을 태정관에서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리야마 등이 왜관에 도착했다는 것까지 태정관 변관(辨官)에 보고했다(『日本外交文書』第3卷, 127쪽). 그만큼 태정관은 조사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조사단의 보고서도 당연히 태정관에 제출했을 것이다.

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 3. 태정관지령 문서에 관한 논란

메이지시대에 일본 정부가 두 번째로 독도의 소속을 판단한 것은 1877년이였다. 이 해에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뒤, “판토의 취사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 태정관에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를 제출했다. 태정관은 내무성의 판단 대로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다. 이 지령서를 발굴한 호리 가즈오는 “‘외 1도’라는 것이 마쓰시마임이 명기되고 그 위치와 형상도 바르게 기술되어 있었다”고 적었다.<sup>19)</sup> 이 논문이 1987년에 발표된 후, ‘외 1도’가 마쓰시마, 즉 독도임을 쓰카모토 다카시,<sup>20)</sup> 나이토 세이쥬<sup>21)</sup> 등의 지지를 받아 오랫동안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 시모조 마사오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는 ‘다케시마 외 1도’의 비정에 대해 변설이 심하다.<sup>22)</sup> 시모조는 2004년에 ‘외 1도’는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 주)를 말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고 썼는데,<sup>23)</sup> 2005~2006년에는 일변해 “외 일도는 당시의 마쓰시마, 현재의 다케시마(독도, 주)를 말한다고 생각된다”고 인정했다.<sup>24)</sup>

19)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103쪽.

20)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5쪽.

21)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書店, 2000, 131쪽.

22)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독도연구』 4호, 2008, 119-121쪽 ;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 140-144쪽.

23)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2004, 123쪽.

24) 『山陰中央新報』, 2005.8.24, 「発信 竹島 11」. 또한 시모조는 朝日TV 「ニュースター, ニュースの深層, 竹島問題 現状と今後の課題」(2006.5.15)에서도 같은 취지를 말했다.

그런데 2007년 3월에는 다시 주장을 바꾸어, 시마네현은 ‘외 1도’를 독도로 생각했으나 “태정관이 관계없다고 한 다케시마 외 1도는 두 개의 울릉도”라고 말했다.<sup>25)</sup>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시모조는 다시 견해를 바꾸어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도 울릉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sup>26)</sup> 게다가 2011년에는 또 다시 주장을 변경해, “다케시마 외 1도”는 “알고너트(竹島)와 울릉도(松島)”라고 주장했다.<sup>27)</sup> 그는 ‘외 1도’가 독도임을 일단은 인정했지만, 그 결과의 중대성 때문인지 주장을 바꾸었다. 그 후는 새 모순이 일어날 때마다 변설을 거듭했다. 이처럼 주장을 아무 설명도 없이 네 번이나 바꾼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다.

시모조 외에도 최근에는 일본에서 ‘외 일도’를 울릉도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기하라 다카시는 태정관지령에서 4년 후인 1881(메이지 14)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일본해 내 마쓰시마 개간에 관한 질의」를 인용해 “메이지 10년에 ‘다케시마 외 1도’라고 썼던 때부터 마쓰시마는 울릉도라고 메이지 정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썼으며,<sup>28)</sup>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도 같은 울릉도 1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 다케시는 먼저 일본어에서 ‘다케시마 외 1도’라는 것은 다케시마와 이 외의 1도, 즉 2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스기하라의 주장은 “사료 해석 문제 이전의 일본어 능력(이해력)이 문제가 되는 해석”, “메이지 9년의 상신서(시마네현의 질의서, 주)에 대해 본인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sup>29)</sup>

25) 下條正男, 「最終報告にあたって「竹島の日」条例から二年」,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2007, 2쪽.

26) 下條正男,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 2007.9, 103쪽.

27)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32回 ハンギョレ新聞電子版の外務省の固有の領土論批判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島根県, 2013, 29쪽.

28) 杉原隆, 「浅井村士族大屋兼助他一名の「松島開拓願」について」, 23쪽.

게다가 다케우치는 시마네현 질의서는 내무성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에 부속 문서로서 첨부됐는데, 그 속의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에 ‘외 1도’는 “다음에 1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회 30정(3.3km, 주), 다케시마와 같은 선로(線路)에 있다. 오키(隱岐)에서 80리(320km, 주)”라고 기술되고 있으며, 더구나 마쓰시마가 독도임이 분명한 지도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sup>30)</sup>까지 첨부됐으니 ‘외 1도’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며, 스키하라의 “1도설 같은 해석이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다.<sup>31)</sup> 이소타케시마는 다케시마(울릉도)를 말한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1994~1996년에는 호리 가즈오의 논문에 찬성해 마쓰시마(독도)도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 됐다고 말했다.<sup>32)</sup> 그러나 최근의 논문에서는 “마쓰시마는 시마네현으로부터의 질의서에서는 에도시대의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를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쓴 다음에 “중앙정부 레벨에서는 대상을 ‘다케시마(울릉도) 및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도 마쓰시마라고도 불리는 섬(울릉도)’으로 인식해, 당해 대상에 관해 우리나라와 관계없다고 판단을 내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sup>33)</sup> 쓰카모토의 논거는 후년의 자료인 태정관 유달(諭達, 1883)이나 앞의 「일본해 내 마쓰시마 개간에 관한 질의」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태정관지령 이전의 내무성 인식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쓰카모토 논문에 대해 나이토 세이츄는 “후년의 자료를 가지고 앞의 안전에 적용하는 역사학의 상식에 반

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 1877년의 시점에서는 질의서를 제출한 시마네현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었으며, 접수한 내무성에서도 다케시마를 예전의 명칭으로 인식해, 마쓰시마를 ‘외 1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하고,<sup>34)</sup> ‘외 1도’가 독도인 근거로 앞의 ‘원유의 대략’ 및 「이소타케시마 약도」를 들었다. 또한 이케우치는 태정관 관련 문서를 분석한 다음에 쓰카모토 등을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스키하라 견해 및 쓰카모토 견해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도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도중 생략) 메이지 10년의 일본정부 중앙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는 일본의 판도 외라고 공식 문서로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본래 존재하지 않는 도명(島名) 혼란의 영향이라는 것을 밖에서 가져와서 모순이 많은 주장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sup>35)</sup>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쓰카모토는 ‘외 1도’가 울릉도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sup>36)</sup> 이런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내무성 및 태정관이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내무성의 인식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연구가 있으나,<sup>37)</sup> 태정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없는 듯하니,

29) 竹内猛, 「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郷土石見』 87호, 2011, 43쪽.

30) 영인은 박병섭·나이토 세이츄,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322~323쪽;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独島論争』, 新幹社, 2007, 324~325쪽.

31) 竹内猛, 「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43쪽.

32)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4쪽 및 제2판 5쪽.

33) 塚本孝,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 『東アジア近代史』 14호, 2011, 58쪽.

34) 内藤正中, 「一九〇五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호, 2011, 11쪽.

35)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149쪽.

36) 塚本孝, 「元禄竹島一件をめぐる一付、明治十年太政官指令」, 『島嶼研究ジャーナル』 第2巻 2號, 2013, 48~54쪽.

37)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33~36쪽.

다음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4. 내무성 및 태정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조사

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질의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일본 각지의 관찬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두 섬의 소속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71(메이지 4)년, 메이지 정부는 각 지방의 번(藩)을 없애고 현을 신설하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했다. 이는 각지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의 시작이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지조(地租)를 개정했다. 이런 정책을 순조롭게 시행하려면 각 지방의 지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태정관 정원(正院)에 지지과를 설치해 관찬지지의 편찬을 1872년에 시작했다. 이윽고 내무성이 신설되자, 정원 지지과는 1874년에 내무성 지리료(地理寮)로 옮겨 계속해 관찬지지의 편찬을 계속했다. 지지과에서는 나카무라 겐키(中村)元起가 다케시마의 역사를 살펴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1875년 8월에 편찬했다.<sup>38)</sup> 이 중에서 마쓰시마에 관한 내용은 돗토리번 기록 『다케시마 노 가키쓰케(竹島之書附)』와 거의 비슷하며 다음과 같다.

1695년 12월 25일 ‘겐로쿠 다케시마일건’ 와중에 돗토리번은 다케시마 등의 소속에 관해 에도막부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이나바국因幡國, 호키국伯耆

國, 주)에 부속하는 섬은 없습니다”고 대답했다.<sup>39)</sup> 이나바국·호키국 양국을 다스리는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다. 막부는 이 대답을 바탕으로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뜻을 쓰시마번과 돗토리번에 전달하는 한편, 돗토리번 대답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 태수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1696년 1월 23일에 제출했다. 먼저 다케시마 도해인데, 다케시마로 도해한 자들은 호키국 요나고(米子)의 백성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사공들이며 이 외는 돗토리번에서는 물론 일본의 다른 나라에서도 없다, 단 사냥꾼들이 이즈모국(出雲國)에서 2~3명, 오키국(隱岐國)에서 8~9명이 요나고 사공들에 고용되어 같이 갔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마쓰시마에 관한 정보인데, 마쓰시마는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다고 들고 있으며, 마쓰시마에 간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 가는 도중에 있으니 들려서 사냥을 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도해 노정은 요나고에서 이즈모국 구모즈(雲津)까지 10리(40km) 정도, 거기에서 오키국 다쿠히산(燒火山)까지 23리 정도, 거기에서 오키국 후쿠우라(福浦)까지 7리 정도, 거기에서 마쓰시마까지 80리 정도, 거기에서 다케시마까지 40리 정도이며, 호키국에서 마쓰시마까지는 해로로 120리 정도, 마쓰시마에서 조선국까지는 80~90리 정도 있다고 들고 있다고 보고했다.<sup>40)</sup>

<sup>39)</sup> “竹島松島其外兩國江付屬之島無御座候事”

<sup>40)</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覺」 松平伯耆守

伯耆國米子之町人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船子共より外者、領國之者竹嶋江渡海仕候儀成不申候、尤、他領之者渡海之儀、猶以、成不申候、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儀者、先年より竹嶋渡海之儀、御免被遊、罷越候付、外より參候儀者決而無御座候、右之船子共竹嶋江獵に罷越候節、出雲國、隱岐國獵師共雇候而、米子之船子同船に而罷越候、人数者年々相違御座候、出雲國よりハ不參儀旨御座候、大形ハ出雲國より二三人、隱岐國より八九人程茂雇候而罷越候由御座候  
一 松嶋は何連之國江付候嶋に而茂無御座候由承候

<sup>38)</sup>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는 『磯竹島覺書 完』 끝에 「明治八年八月八日 校正 中村元起」라고 쓰고 「元起」의 날인이 있다. 한편, 쓰쿠바(筑波)대학이 소장하는 『磯竹島事略』은 내제(內題)가 「磯竹島覺書」이며, 이는 『磯竹島覺書 完』의 사본이다. 『磯竹島事略』의 번각은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資料編)』(島根県, 2007)에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내무성이 편찬했으나, 내무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했던 것이다.

지지도는 『이소타케시마 각서』의 편찬을 마친 다음 달 9월에 태정관 수사국(修史局)으로 옮기고 지지도(地誌掛)로 개편됐다.<sup>41)</sup> 이때에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한 나카무라 겐키도 지지도로 옮기고 관찬지 『일본지지도요(日本地誌提要)』의 편찬에 참여했다.<sup>42)</sup> 당연히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은 관찬지지도에 이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 1877년 1월에 권50 「오키(隱岐)」가 포함된 『일본지지도요』 제5책이 간행됐는데,<sup>43)</sup> 여기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기록됐다. 이를 보면, 두 섬은 인슈(隱州)의 속도 179개 속에 포함되지 않고, 이들과 따로 기술됐다.<sup>44)</sup> 두 섬은 물론 다른 주(나라)의 속도가 아니므로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이는 『이소타케

- 一 松嶋江獵に參候儀 竹嶋江渡海之節道筋にて御座候故 立寄獵仕候、他領より獵ニ參候儀ハ不承候、尤、出雲國、隱岐國之者ハ米子之者共と同船ニ而參候
- 一 伯耆米子より出雲國雲津迄、道程十里程
- 一 出雲國雲津より隱岐國焼火山迄、道程式拾三里程
- 一 隱岐國焼火山より同國福浦迄七里程
- 一 福浦より松嶋江八拾里程
- 一 松嶋より竹嶋江四拾里程
- 一 松嶋江伯耆國より海路百式拾里程
- 一 松嶋より朝鮮國江ハ八九拾里程茂御座候様ニ承及候 已上  
正月二十三日

41) 佐藤侑, 「内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 『古地図研究』 305号, 1999, 7-9쪽.

42) 『日本地誌提要』 卷一 「編纂姓氏」에 「十三等出仕 中村元起」라는 기술이 있다.

43) 元正院地誌課編, 『日本地誌提要』, 臨川書店, 1982, 1쪽.

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本州の属島。知夫郡四拾五。海士郡壹拾六。周吉郡七拾五。穩地郡四拾三。合計壹百七拾九。之を總称して隱岐の小島と云。

○又、西北に方たりて松島・竹島の2島あり。土俗相伝て云ふ。穩地郡福浦港より松島に至る。海路凡六拾九里三拾五町。竹島に至る。海路凡百里四町余。朝鮮に至る海路凡百三拾六里三拾町。

시마 각서』를 편찬한 나카무라가 『일본지지도요』 편찬에 참여했으나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메이지 시대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는 『일본지지도요』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영토 밖으로 다루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그는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 밖으로 다른 정부 자료로서 문부성(文部省)이 발행한 지도나 해군의 수로지 등을 예시했다.<sup>45)</sup> 다나카는 한때 종래의 다케시마(울릉도)와 일본이 1905년에 영토 편입한 다케시마(독도)를 혼동했지만, 어차피 『일본지지도요』가 다케시마·마쓰시마, 즉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다루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sup>46)</sup>

위와 같이 내무성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조사가 끝난 후인 1876년 10월에 시마네현으로부터 앞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가 내무성에 제출됐다. 앞에 썼듯이 이에 ‘이소타케시마 약도’가 첨부됐는데, 이 안에 마쓰시마의 위치가 오키 후쿠우라에서 80리, 다케시마까지 40리라고 기록됐다. 이 거리는 『이소타케시마 각서』에 기록된 마쓰시마의 노정과 일치한다. 이처럼 시마네현이 조사한 마쓰시마의 위치가 내무성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와 일치했으니, 양 관아는 마쓰시마를 같은 섬으로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

시마네현 질의서를 접수한 내무성은 시마네현 자료 외에 『다케시마 기사』 등을 조사해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판도의 취사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생각한 내무성은 신중히 태정관에 시마네현 질의서와 같은 제목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를 1877년 3월 17일에 제출하고 재가

45) 田中阿歌麻呂,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 『地学雑誌』 제200호, 1905, 594쪽 및 210호, 1906, 419쪽.

46)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34쪽;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136-139쪽.

를 요청했다.<sup>47)</sup> 내무성의 질의서를 접수한 태정관은 불과 3일 후인 20일에 “서면, 다케시마 외 1도의 건,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 품의 절차로 넘겼다. 이처럼 태정관 사무 당국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지과가 그 해 1월에 개편되고 태정관 내에 수사관(修史館) 제3국 을과(乙科)<sup>48)</sup>로 존재한 덕분에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그 소속을 밝힌 권50「오키」를 포함한 『일본지지제요』 제5책을 두 달 전인 1월에 이미 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지지제요』에 기록된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위치는 오키 후쿠우라에서 마쓰시마까지 69리 35정, 후쿠우라에서 다케시마까지 100리 4정으로 기록됐으니,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는 30리 5정이 된다. 이를 내무성이 편찬한 『이소타케시마 각서』와 비교하면, 섬 사이 거리가 각각 10리가량 짧으며 실제 거리에 조금 가깝게 됐다. 거리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내무성 및 태정관이 말하는 마쓰시마는 같은 섬을 가리키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리 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관아가 인식한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위치  
(1리는 4km, 1정은 110m)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
隱岐-松島	80리	80리	69리 35정
松島-竹島	40리	40리	30리 5정
竹島-조선	50리	40-50리	36리 26정
출처 자료	磯竹島略圖	磯竹島覺書	日本地誌提要
발행일	1876.10	1875.8	1877.1(권50)

그 후 태정관 내에서 품의된 내무성 질의서는 지령 안 중의 단어 ‘서면’이 ‘질의의 취지’로 고쳤을 뿐만으로 승인되고 태정관으로부터 내무성에 지령됐다. 이처럼 내무성 및 태정관은 『이소타케시마 각서』, 『일본지지제요』 등의 편찬을 통해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위치 등을 잘 파악하고 두 섬이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 쓴 쓰카모토의 “중앙 정부 레벨에서는 대상을 ‘다케시마(울릉도) 및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도 마쓰시마라고도 불리는 섬(울릉도)’으로 인식해, 당해 대상에 관해 우리나라와 관계없다고 판단을 내린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1877년 12월 태정관에서의 지지 편찬은 폐지되고, 대신 1878년 1월에 내무성 지리국에 지지과가 신설됐다.<sup>49)</sup> 이때에 태정관의 지지 자료들은 모두 지리국 지지과가 인수했다. 그 후 지리국은 관찬지도 「대일본 부현 관할도(大日本府縣管轄圖)」(1879),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國全圖)」(1880), 『대일본 부현 분할도(大日本府縣分轄圖)』(1881) 등을 작성했는데, 이들은 태정관 지령을 받들어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그리지 않거나, 그러도 개정판에서는 일본영토로 취급하지 않았다.<sup>50)</sup> 게다가 지리국은 폐번치현을 실시한 1871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 각지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나타내는 지도책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國全圖)』<sup>51)</sup>를 1883년경에 작성했는데, 이에 들어간 지도 12장 모두에 다케시마·마쓰시마는 그려지지 않았다.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영토 밖으로 한 인식은 당연히 관찬지도에 반영됐던 것이다.

결국 내무성 및 태정관은 『이소타케시마 각서』, 『일본지지제요』, 관

47) 『公文錄』內務省之部一, 明治十年三月, 「日本海内竹島外一島編纂方伺」; 영인은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311~323쪽.

48) 佐藤侑, 「內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 7~9쪽.

49) 佐藤侑, 「內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 7~9쪽.

50)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42쪽.

51) 일본 国立公文書館所蔵, 請求番号 「㉟二九一/〇三一〇」.

찬지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1882년에 이르기까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별개의 두 섬으로 보고 일본영토 밖으로 인식했다.

## 5. 표류 어민의 독섬 발견과 칙령 41호

1900년 10월에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죽도(죽서), 석도로 정했다. 이 칙령의 중요성을 시모조 마사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약 그 석도가 한국 측의 주장대로 다케시마(독도, 주)라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행위가 된다.<sup>52)</sup>

이처럼 석도의 비정은 중요하니 오래 전부터 널리 관심을 끌어들였다. 한국인 연구자를 비롯해 일본인 연구자도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sup>53)</sup> 나이토 세이쥬,<sup>54)</sup>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sup>55)</sup> 쓰카모토 다카시<sup>56)</sup> 등이 석도는 독도라고 보았다. 단, 쓰카모토는 최근의 논문에서는 석도가 독도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sup>57)</sup> 이케우치 사토시는 석도의 비정 문제를 깊이 검토했으나,

결국은 석도의 비정을 피했다.<sup>58)</sup> 한편, 후나스기 리키노부(舩杉力修)는 현지조사 결과 “석도는 관음도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sup>59)</sup> 그러나 후나스기는 처음부터 독도를 검토 대상 외로 하고 있으니 논증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시모조 마사오는 견해를 두 번이나 바꾸었는데,<sup>60)</sup> 최근에는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부속 지도를 인용해, ‘鼠項島’(관음도)의 일본어 음독 ‘소코토(ソコウトウ)’가 石島의 한국어 음독 ‘석도’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sup>61)</sup> 그러나 鼠項島는 島項(관음도)의 혼독과 같이 ‘섬목’섬이라고 불렸으니 시모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다.<sup>62)</sup>

그런데 석도는 칙령41호 이전의 자료에는 볼 수 없으니, 그 이름은 현지 울릉도 주민의 독도 인식에서 생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연유를 따지려면 우선 당시의 울릉도 주민의 동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말에 울릉도에서는 해금·수토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1850년대에 제주도 사람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울릉도로 자주 왕복하고 있었다. 그런 배편을 이용해, 김병두 등 경상북도 경주 사람들 4가구, 강원도 삼척 사람들 3가구가 울릉도로 이주했다고 한다.<sup>63)</sup> 이와 관련이 있는

52)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 98쪽.

53) 梶村秀樹,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호, 1978, 23쪽.

54)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177쪽.

55)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72쪽.

56)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3號, 2000, 89쪽.

57) 塚本孝,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 63쪽.

58) 池内敏, 「竹島/独島と石島の比定問題・再論」, 『テキストの解釈学』, 水声社, 2012, 423쪽.

59) 舩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Ⅱ)」,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 2007, 171쪽.

60)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111~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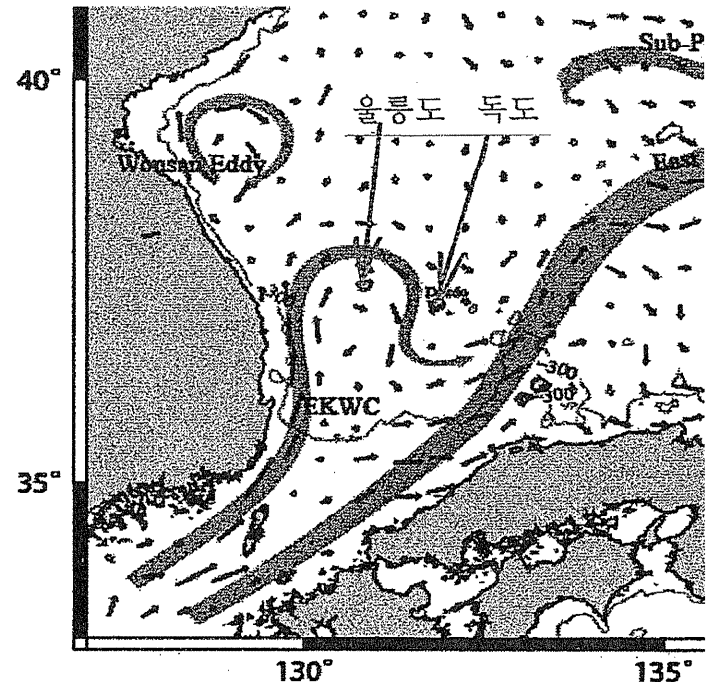
61) 下條正男, 「独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19호, 2008, 30쪽.

62)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8호, 2010, 210~214쪽;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73~77쪽.

63) 『필주 자서전(彌鉢自叙傳)』,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허영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호, 2006, 225쪽에서 재인용.

지, 1861년 봄에는 경상북도 경주 사람들 4명이 약초를 캐기 위해 울릉도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sup>64)</sup> 또한, 1872년경부터 경상남도 함양 출신 전석규가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울릉도에 거주했다.<sup>65)</sup> 이즈음부터 전라도 어민들도 매년 봄에 울릉도로 가서 미역을 채취하고 배를 만들어 돌아가게 됐다. 특히 삼도(거문도)에서 왕래하는 배가 많았으며, 그 수는 1902년경에 20척 안팎에 달했다.<sup>66)</sup> 그런데 어민들이 울릉도로 도해할 때에 탄 배는 돛단배였다. 이런 배의 돛은 강도가 약해서 항해 도중에 거센 바람을 만나면 망하기 쉽고 표류할 위험성이 높았다.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인 배도 1900년대에조차 “두 항해에 한번은 필시 어딘가에 표류할 정도로 실로 위험하다”고 보고될 만큼 표류가 많았다.<sup>67)</sup> 조선인의 배도 마찬가지로 표류가 많았다. 표류민의 통계에 의하면 1873~1888년의 16년 동안에 63건, 연 평균 약 4건이나 조선인의 배가 일본으로 표류했다.<sup>68)</sup> 표착지의 2/3는 쓰시마(17건)를 포함한 규슈(九州)이지만, 나머지 중의 13건은 시마네현, 7건은 야마구치현(山口縣)이었다. 이 밖에도 조선 안의 표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표류하면 독도로 표착할 가능성이 크다. 울릉도 개척민 홍재현은 “본도(울릉도, 주) 동해에서 표류하는 어선은 종고(從古)로 독도에 표착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증언했다.<sup>69)</sup> 울릉도 주변 해류는 하계(7~9월)를 제외하면 <그림 2>와 같다.

즉 “동해안을 따라 올라온 난류가 북위 38도 근처에서 동쪽으로 흘러 울릉도 북쪽을 지나 시계방향으로 울릉도를 감싸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다시 남서쪽으로 흐른다”<sup>70)</sup>고 한다. 따라서 봄에 전라도 어민이 동해안을 따라 울릉도로 갈 때에 만약 표류하면 독도 가까이에 갈 것이다.<sup>71)</sup> 그때 그들이 보게 될 바위섬을 그들은 전라도에 있는 石島처럼 그들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림 2> 울릉도 근처의 해류, 7~9월을 제외함<sup>72)</sup>

64) 「대마도 중가문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목록 # 9143, 4366 ; 이훈, 『조선 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110~111쪽.  
 65)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1882년 5월 4일.  
 66)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 第234号, 1902, 47쪽.  
 67) 外務省記録 616-10, 「明治三十五年 蔚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書二』, 1902 ;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 第234号, 1902, 47쪽.  
 68)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14쪽. 池内敏는 표1-2에서 “1873-1888(11년간)”이라고 썼는데, 11년간은 16년간의 잘못인 듯하다.  
 69) 外務部, 『獨島問題概論』, 1955, 36쪽.

70) 백인기·심문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70쪽.  
 71) 박병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179쪽.  
 72) 백인기·심문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 70쪽(그림 3-11의 일

표류민이 독도에 표착하면 거기에 강치 떼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때로는 강치 잡이를 시도했을 것이다. 김수희가 발굴한 자료 『민국일보』(1962.3.19) 기사에 따르면 거문도의 어부 김치선이 1820년대에 울릉도를 경유해 독도로 가서 강치 잡이를 했다는 전승이 있다.<sup>73)</sup> 또한 같은 기사에 의하면 거문도의 김운삼은 1895년부터 1904년까지 독도로 가서 강치 사냥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나무를 파서 이어 만든 큼직한 ‘천석짜리’ 배로 울릉도로 가고, 거기에서 뗏목 배를 저어 이틀 만에 돌섬(독도)에 도착해 열흘 남짓 가제(강치)를 잡고 미역, 전복 등을 따다고 한다. 그들이 돌섬으로 갈 때 큼직한 배를 타지 않고 뗏목 배를 탄 것은 주목된다. 이 이유는 독도 주변에는 암초가 많으므로 큰 배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데다가, 돌섬에서 날씨가 악화되면 배는 해안에 끌려 올릴 필요가 있는데 큼직한 배는 끌려 올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74)</sup>

한편, 일본인도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독도 어업을 1899년에는 시작했다. 이 해에 오이타(大分)현 어민이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수개월 간에 걸쳐 상어잡이를 했다고 기록됐다.<sup>75)</sup> 또한, 한국의 어업을 잘 알고 있는 구즈우 슈수케(葛生修亮)는 1899~1900년에 상어잡이 어선이 양코도(독도)로 두어 번 출어한 것이나, 1899년경에 야마구치(山口)현의 전복을 따는 잠수기선이 양코도로 출어했는데 잠수했을 때에 수많은 강치 떼에 방해받았던 것 등을 보고했다.<sup>76)</sup> 게다가 이 어선 등이

부를 확대하고 섬 이름을 추가함).

73) 김수희는 아래 논문에서 강치 사냥이 1750년부터 시작됐다고 썼으나, 『민국일보』 기사 표제어에 “거문도서 140년래 전승”이라고 쓰고 있으니 시작은 1822년경이 된다. 김수희,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호, 2011, 190쪽.

74)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獨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21쪽.

75) 朝鮮漁業協會, 「朝鮮海水業の実況(第拾回巡邏報告)」, 『大日本水産會報』 第210号, 1899.12.15, 9~43쪽; 이중학, 『한일 어업 관계 조사 자료』, 사에연구소, 2000, 280쪽.

1899~1900년에 ‘새 도서’를 발견했으며, 이는 양코도(독도)임이 『지학잡지』에 보고됐다.<sup>77)</sup> 이런 어선 등은 모두 울릉도를 기지로 한 것이다.

그런 어민들의 활동을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도감은 울릉도를 출항하는 일본 배에 관원 2명을 파견해 수출세로서 화물의 2/100를 콩으로 1900년까지 징수하고 있었다.<sup>78)</sup> 따라서 도감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왕래한 어선을 잘 감시하고 파악했을 것이다. 그런 어선들은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독도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울릉도에서 건조한다든지 가공을 하고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그런 가공품에 대해 울릉도도감은 수출세를 부과한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울릉도도감은 독도를 잘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독도의 호칭인데, 일본인은 리양코도, 랑고도 혹은 양고도라고 불렀다. 한편, 조선인은 앞의 김운삼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는데, 전라도 사람은 바위섬을 독섬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인 어민들 사이에서 돌섬 혹은 독섬으로 불렀던 독도가 칙령41호에 한자로 石島라고 기재됐던 것이다. 그러나 독섬을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할 수 있어도, 石島를 독섬이라고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울릉도에서는 개척이 시작되어 강원도 및 경상도 사람들이 점차 늘었으니, 石島를 독섬이라고 읽는 것은 점점 어렵게 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石島의 표기가 사라져 獨島로 표기된 것 같다. 獨島의 표기라면 쉽게 독섬이라고 읽을 수 있다. 이처럼 혼독하기 어려운 섬 이름의 표기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관음도의 옛 이름인 섬목(島

76) 葛生修亮, 「韓国沿海事情」, 『黒龍』 제1권 제2호, 1901, 13쪽.

77)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学雑誌』 제13집 제149권, 1891, 301쪽.

78) 朴炳涉, 「明治時代の隣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호, 2010, 48~49쪽;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210쪽;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68쪽.

項)은 '項'자를 '목'으로 혼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 때문인지 부산의 일본영사관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의 보고서 「울릉도 조사 개황」 부속지도(1900)에는 '項'자를 '牧'자로 변화시키고 島項이 '島牧'으로 표기됐다.<sup>79)</sup> 물론 이들의 호칭은 섬목이며 변함이 없다.

한편, 독도는 적어도 광복 전후까지는 실제로 '독섬'이라고 호칭됐던 것이 아래 자료 등에서 알 수 있다.

1925년경	오쿠무라 료(奥村亮) 진술서에 “獨島(トクソン)” <sup>80)</sup>
1947년	남선경제신문에 “독섬(獨島)” <sup>81)</sup>
1948년	『국제보도』에 “독섬(獨島)” <sup>82)</sup>
1948년	GHQ로의 탄원서에 “Docksum” <sup>83)</sup>

이 중에서 'トクソン'(도쿠손)은 '독섬'의 일본어 표현이다. 이처럼 독도의 호칭명은 독섬이었는데, 일부 자료에는 '돌섬'의 표기도 볼 수 있다.<sup>84)</sup> 이상과 같이 독도의 호칭은 개척 당시의 울릉도 주민에 의해 주로 독섬으로 불렸으며, 이것이 1900년 칙령41호에 石島로 표시되고, 이윽고 獨島로 변했던 것이다.

獨島의 표기는 일본에서는 『군함 니이타카(新高) 행동 일지』(1904.9.25), 『지학잡지』(1906),<sup>85)</sup> 『시마네현지(島根縣誌)』(1923),<sup>86)</sup> 『대장성

토지 대장(大蔵省土地臺帳)』 「다케시마 방어구(竹島防御区)」(1947)<sup>87)</sup>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06년 3월의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에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조선 지도에 기재된 우산도인데, 한말에는 존재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된 것 같다. 1882년에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로 출발하기 전에 왕으로부터 우산, 송죽도의 존재를 잘 조사하도록 명을 받았지만, 그의 『울릉도검찰일기』에 따르면 울릉도에서는 죽도(죽서)를 확인했을 뿐이며, 우산도의 확인을 못했다. 현지 주민도 우산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고 한다. 울릉도정계 이후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동국문헌비고』 등의 관찬서에 기재됐지만, 현지에서는 그 사실을 거의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울릉도 주민의 전설은 우산도는 울릉도 동북쪽 40~50리에 있다고 한다.<sup>88)</sup> 이 전설을 믿고 한·일 주민이 1900년경에 공동으로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실패에 끝났다.<sup>89)</sup> 우산도의 방향이 잘못된 탓인 것 같다. 결국 1900년에 칙령 41호에서 울도군이 신설됐을 때에 존재가 애매한 우산도는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6. 일본 정부의 영토 편입과 독도 인식

메이지시대에 일본 정부가 세 번째로 독도의 소속을 판단한 것은 1904~05년이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04년에 오키 어민 나카이 요자

79) 外務省記録 3532, 『濤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80)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變遷』, 1953, 37쪽.

81) 『남선경제신문』, 1947.8.27;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150쪽.

82) 송석하, 「고색 창연한 역사적 유적 울릉도를 찾아서」, 『국제보도』 제3권 1호(통권 10호), 국제보도연맹, 1948.1, 328쪽.

83) “Request for Arrangement of 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5, 1948). 영인은 정병준, 『독도 1947』, 254쪽.

84) 「돌섬은 우리의 섬」, 『새韓民報』 2-13, 1948, 11쪽; 鄭秉峻, 「解放後韓國の獨島に対する認識と政策(1945-51)」,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5-2, 2008, p.22.

85) 田中阿歌麻呂, 「隱岐國竹島に關する地理學上の智識」, 『地学雜誌』 210號, 1906, 415쪽.

86) 島根縣教育會編, 『島根縣誌』, 島根縣教育會, 1923, 690쪽.

87)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變遷』, 19쪽부터 재인용.

88) 『매일신보』, 1913.6.22, 「우산도 탐험 중지」.

89)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216쪽;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80쪽.

부로는 리양코도(독도)에서의 강치 사냥을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리양코도 영토 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때에 내무성은 물론 반대했다. 앞에 쓴 것처럼 내무성은 일찍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태정관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무성이 나카이의 청원서를 일단 각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는 러일전쟁의 와중에 “시국이 야말로 그 영토편입이 시급히 요구되며,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 상 지극히 유리하며 특히 외교상 내무성처럼 고려를 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나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sup>90)</sup>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의 영토편입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결국은 일본영토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는 리양코도를 억지로 무주지의 명목으로 1905년 2월에 영토 편입해 시마네현 관할로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토편입을 공표하지 않고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의 일본영사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1905년 7월 일본영사관은 보고서 「울릉도 현황」에서 “울릉도 동남쪽 약 25리(100km)에 위치하는 랑코도”, 즉 독도에서의 ‘울릉도민’의 강치 사냥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원수, 배의 수, 포획한 강치 수, 강치의 시가 등을 기록해 외무성에 보고했다. 일찍이 일본영사관은 1902년에도 리양코도(독도)를 울릉도 부속의 섬처럼 보고 울릉도로부터 독도로 출어한 일들을 외무성에 보고했으며,<sup>91)</sup> 이 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통상회찬』에 전제됐다.<sup>92)</sup> 마찬가지로 1905년의 영사관 보고서도 『통상회찬』에 「울릉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전제됐는데, 이

때에 랑코도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다케시마’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고 보고서에서의 이름 ‘랑코도’ 대로 기재됐다.<sup>93)</sup> 외무성도 영사관의 인식을 이어받아 랑코도를 일관해 ‘울릉도민’이 어업활동을 할 만한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다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울릉도 현황」은 그대로 『관보』(1905.9.18)에 게재됐다. 『관보』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게재하는 간행물이다. 일본 정부마저 랑코도를 ‘울릉도민’이 경제활동을 할 만한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고 『관보』에 반포해, 그 인식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된 것이다.<sup>94)</sup> 이는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영토 편입한 내각회의의 결정이 마땅치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7. 시마네현의 울릉도·독도 조사와 심홍택 보고서

메이지시대에 일본 정부가 독도의 소속을 판단한 일이 또 한 번 1906년에도 있었던 것 같다. 이 해에 시마네현 관리가 울릉도를 방문해 울도군수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됐다고 고한 사건이 있었던데, 훗날에 일본 통감부로부터 울도군에 관한 조회가 한국 정부 내부에 있었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소속에 관해 다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위를 살펴보고 아울러 도대체 시마네현 관리가 무슨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했는지 살펴본다.

1906년 3월, 시마네현은 제3부장 진자이 유타로(神西由太郎)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독도와 울릉도로 파견했다. 조사단의 보고서를 작

90)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117쪽.

91) 外務省記録 616-10,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

92)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 234호, 1902, 46쪽.

93)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 50호, 1905, 50쪽.

94)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204쪽;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67쪽.

성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조사단은 날씨 악화로 울릉도로 피난했다고 기록했으나,<sup>95)</sup> 실은 일행의 목적에 처음부터 독도만이 아니라 울릉도의 조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마네현 문서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의 공통된 조사 항목은 (1)연해 조류의 상황, 완급, (2)항풍(恒風), (3)해심(海深), 해저의 질, 어초(魚礁)의 유무, (4)해변가 수산물의 종류(물고기, 조개, 해조), (5)회유어의 유무, 거취 상황, 종류, (6)어렵 채취 방법의 가망, 등 어업 조사가 주였다. 그리고 독도만의 독자적인 조사는 (7)초목 재배의 가부, (8)상주할 가망의 유무, 음료수의 유무와 양부 등이다. 또한, 울릉도만의 조사는 (7)어항 및 피난처의 상황, (8) □漁, 대체 몇 호쯤 이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가, (9)농산물의 종류, 경작의 개략, 차지의 절차, (10)담배 재배의 가부, (11)조림의 가부, 등이다.<sup>96)</sup> 이처럼 어업 조사 외에 토지를 빌리는 절차, 담배의 재배, 조림의 가부, 이주 가능한 어민 가구 수 등의 조사도 포함되고 있었으니, 시마네현은 현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또한, 심흥택 보고서에 의하면 진자이 등은 울도군수에 “호총(戶摠)·인구·토지·생산의 다소(多少)를 묻고, 또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울릉도 침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사 내용이다. 이처럼 울릉도의 조사는 처음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것이며, 울릉도로의 피난이라는 명분은 일행의 여권이나 입국사증 등 외국으로 도항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구실인 것 같다.

조사단은 독도의 조사를 마치고 3월 28일에 울릉도로 상륙했다. 일행의 행동에 대해 울도군수 심흥택은 정부에 대한 보고서에 먼저 “본군 소속 독도가 재어(在於)본방 외양 백 여리 외”라고 쓴 다음, 일행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됐다고 고한 것이나 위의 시마네현의 질문 내용 등을 보고했다.<sup>97)</sup> 이 보고에 대해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30일에 “독도 영지지설(領地之說)은 전속 무근(全屬無根)하니 해도(該島) 형편과 일인 여하(如何) 행동”을 더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령 3호를 내렸다.<sup>98)</sup> 또한, 내부는 흥정원이 발굴한 『제국신문』(1906.5.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훈령했다.

울도군수 심흥택씨가 내부로 보고하기를 일본 관인 일행이 본군에 래도하여 호구와 토지를 조사하되 말하기를 울도는 일본에서 점령한 고로 조사한다 할지라 내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조사는 옹혹무괴한 일이어니와 점령하였다는 말은 무기한 일이니 쟁이 상지하거든 일본리사에게 교섭하여 처단하라 하였더라

『제국신문』은 “울도는 일본에서 점령한 고로” 라고 쓰고 있지만, 『대한매일신보』(1906.5.1)가 “독도지칭운(獨島之稱云) 일본속지(屬地)”라고 전하듯이 울도는 독도의 잘못이다. 『제국신문』 기사는 이런 오인은 있으나, 독도를 일본이 점령한 것은 무기(誣欺)한 일이니 일본리사와 교섭하라고 훈령한 것을 전했다. 단 일본리사라는 말은 없으니, 흥정원은 이를 1906년 2월에 설치된 통감부의 지방 조직 이사청으로 해석했다.<sup>99)</sup> 혹은 이사청의 대표 이사관을 가리킬 수도 있다. 내부가 교섭 상대로 ‘일본리사’를 지정한 것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권을 잃어 외부가 폐지되고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됐으니, 내부는 통감부 혹은 이사청을 교섭 상대로 할 수

<sup>95)</sup>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78쪽.

<sup>96)</sup> 島根県 乙農第一六九号, 「第三部長へ回答案」,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件番043, 島根県総務課所蔵. □는 해독 불능.

<sup>97)</sup>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역사공간, 2011, 248쪽; 宋炳基, 朴炳涉 訳, 『鬱陵島・獨島(竹島)歴史研究』, 新幹社, 2009, 184쪽.

<sup>98)</sup> 영인은 송병기, 위의 책, 249쪽; 宋炳基, 위의 책, 185~186쪽.

<sup>99)</sup> 흥정원, 「러일의 울릉도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군사』 80호, 2011, 59쪽.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울도군과 관련해 주목될 신문 기사가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통감부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 씨가 강원도 삼척군으로부터 분설된 울도군 면명(面名) 동호(洞号)와 설치 하연월(何年月)을 소상 녹교(錄交)하라고 내부에 공합하얏다더라”고 보도했다.<sup>100)</sup> 통감부의 문의는 내부 혹은 내부의 훈련을 받은 지방 관아가 통감부에 대해 울도군에 관해 무언가 주장을 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제국신문』 보도대로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 서함 및 이에 대한 회답에 관해 『황성신문』(1906.7.13)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울도군 배치 전말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합하되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 울릉도에 소속 도서와 군청 설치 연월을 시명(示明)하라 한 고로 답함(答函)하되 광무 2년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실시하얏다가, 광무 4년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경유하여 군수를 배치하니 군청은 무태동(霧台洞)에 在하고, 해(該) 군 소관 島는 죽도 석도오 동서가 60리오 남북이 40리니 합(合) 200여 리라고 하얏다더라

이 기사의 존재는 일본 『산인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2008.2.22) 기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기사 중의 ‘광무 4년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라는 것은 그날에 반포된 칙령 41호를 말한다. 내부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석도가 울도군의 관할로 된 것을 통감부에 회답한 것이다.

그런데 내부는 “동서가 60리오 남북이 40리니 합(合) 200여 리”라고 했는데 ‘합 200여 리’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는 얼른 보기에는 흑시 김정호의 대표적인 지도 『대동여지전도』<sup>101)</sup> 중에 울릉도의 크기로 기

입된 “동서 60여 리 남북 40여 리 주(周) 200여 리”를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답서에는 “주 200여 리”가 아니라 “합 200여 리”라고 썼다. 이는 단순한 오기가 아닐 것이다. 또한, 이 글의 주어는 울도군이라 생각되므로 ‘합 200여 리’를 울릉도 주위의 거리로 볼 수 없다. ‘합 200여 리’는 동서와 남북의 거리에 무언가를 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무언가는 심홍택 보고서에 쓴 “독도가 재어본방 외양 백여 리”의 ‘백여 리’가 아닐까? 100여 리에 40리와 60리를 합하면 마침 200여 리가 된다. 단 200여 리는 울도군의 크기의 표현으로서는 합리적이지만 동서와 남북의 거리는 울도군의 크기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해도 내부는 울도군의 동서와 남북의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부는 동서와 남부의 거리는 기지의 자료에 기록된 울릉도의 거리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합 200여 리’에는 독도가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앞에 쓴 시모조는 ‘합 200여 리’의 ‘합’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동서가 60리오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 리”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sup>102)</sup> 그런 결론을 내기 전에 우선 ‘합 200여 리’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1906년 당시의 일련의 보도 자료에서 판단하면 내부는 심홍택이 보고한 독도를 칙령 41호의 석도로 인식하고, 내부 혹은 그 훈련을 받은 자가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 것에 대해 일본의 통감부 혹은 그 지방 조직인 이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불명하지만, 이후에도 서로 간에 서함의 왕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호리 가즈오는 독도의 “분쟁은 1952년이 아니라 바로 영토 편입의 시점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했으나,<sup>103)</sup> 바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관, 2007, 84쪽.

<sup>102)</sup>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34回 事実無根. 韓国の'独島の日'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島根県Web竹島問題研究所, 2013, 35쪽.

<sup>100)</sup> 『대한매일신보』, 1906.7.13 ; 박병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184쪽.

<sup>101)</sup> 김정호, 『대동여지전도』, 1861, 영인은 『무릉도원을 찾아 동해의 섬으로』, 독도박

자료가 발견됐다고 할 수 있다.

## 8. 맺음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의 소속을 판단한 것은 1870년이었다. 이 해에 외무성 관료 모리야마 등은 조선을 내탐해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를 외무성에 제출했는데, 이 안에 제목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된 시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연구자들의 평가는 낮다. 『내탐서』에 두 섬이 조선으로 된 시말의 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내탐서』의 1차 자료 원문을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다. 1차 자료 『공문별록』 원문에는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해 “겐로쿠 때의 왕복서함,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고 쓰고 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리야마 등은 겐로쿠기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왕복된 서함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탐서』에 첨부한 별책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 안에 「다케시마일건」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안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된 시말이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취조서』에 마쓰시마(독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원래 쓰시마번에는 마쓰시마에 관한 기록이 적지만, 『다케시마 기사』 등에서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의 섬이며 겐로쿠기에 다케시마와 함께 도해가 금지됐다고 이해되고 있었다. 이런 쓰시마번의 인식이 모리야마 등에게 전해진 결과, 그들 조사단 전원이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의 유무보다 “다케시마 이웃에 있는 섬”에 관한 쓰시마번의 인식, 혹은 간단한 기록을 보고 마쓰시마

(독도)를 조선영토로 판단했다. 마쓰시마에 관한 충분한 기록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의 부속 섬, 혹은 다케시마와 한 쌍을 이룬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이 『내탐서』 및 『취조서』는 태정관에도 제출됐으니 태정관도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을 것이다. 결국, 메이지 신정부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인식한 에도막부의 인식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두 번째로 독도의 소속을 판단한 것은 시마네현이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의 편찬에 관한 질의」를 내무성에 제출한 1876-77년이였다. 이 질의서의 첨부 자료 「이소타케시마 약도」나, ‘원유의 대략’ 등에도 볼 수 있듯이, 시마네현은 ‘외 일도’, 즉 마쓰시마(독도)를 다케시마의 부속 섬으로 보았다. 내무성은 이런 자료들에 더해 에도시대의 ‘겐로쿠 다케시마일건’ 등의 사료를 잘 조사해 ‘다케시마 외 일도’, 즉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내무성은 1875년에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을 조사해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했는데, 이때에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의 부속 섬처럼 보고 두 섬이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태정관도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바탕으로 1877년 1월에 관찬지지 『일본지지제요』 권50 「오키」를 편찬·간행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었다. 물론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위치에 관한 인식은 시마네현과 내무성, 태정관 모두가 거의 같았다. 따라서 쓰카모토 견해, 즉 태정관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령을 내린 ‘다케시마 외 1도’를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라고도 마쓰시마라고도 불리는 울릉도로 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대저 쓰카모토는 1877년 이전의 내무성 및 태정관 관련 자료 『이소타케시마 각서』, 『일본지지제요』 등을 무시하고 1877년 이후의 자료인 태정관 유달(1883) 등을 인용해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을 해석했으니,

103)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121쪽.

논증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역시 쓰카모토 견해 및 스기하라 견해는 이케우치가 말하듯이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도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태정관 지령을 받은 내무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영토 밖으로 하는 인식에 따라 관찬지도 『대일본국 전도』 등을 발간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잘 조사한 뒤에 두 섬을 일본영토 밖으로 다루었다.

일본 정부가 세 번째로 독도의 소속을 판단한 것은 1904~05년이였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우여곡절 끝에 독도를 무주지의 명분으로 비밀리에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시마네현의 관할로 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한말에 해금·수토정책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로 도해하고 독도를 어업에 이용하고 있었다. 어민들이 독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그들의 표류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도해할 때에 탄 배는 돛단배였으며 표류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는 두 항해에 한번은 표류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표류하면 조류 관계상 독도로 표착하는 일이 많았다. 표류민들은 독도를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부르고, 어민들은 실제로 1895년경부터 강치 사냥을 시작했다. 또한, 일본 어민들도 1899년경부터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리양코도(독도)에서 상어잡이를 하고 전복을 따다. 일본인들은 리양코도에서의 어획물을 울릉도에서 말리거나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이에 울릉도도감이 수출세를 1900년까지 부과한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울릉도도감은 독섬을 잘 관할하고 있었다. 도감을 비롯한 울릉도민의 독섬에 대한 영유 인식이 1900년에 칙령41호에 반영돼, 독섬은 칙령에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되어 울도군 관할로 됐다. 그러나 독섬을 石島라고 표기할 수 있

으나, 石島를 독섬이라고 읽는 것은 전라도 외의 주민이 늘어난 울릉도에서는 점점 어렵게 되고, 한자 표기가 獨島로 변했다고 생각된다. 獨島라면 쉽게 독섬이라고 읽을 수 있으며, 독섬=獨島의 표기는 광복 전후까지 흔히 사용되고 있었다.

독도를 어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은 부산의 일본영사관도 같다. 영사관은 1902년부터 경찰관을 울릉도에 불법으로 상주시켜 울릉도를 주시한 결과, 울릉도 주민의 랑코도(독도)에서의 어업 활동을 알게 되고, 랑코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게 됐다. 영사관은 그런 어민들의 활동을 일본외무성에 보고했다. 그 보고서는 때로는 외무성 『통상회찬』에 전재 됐는데, 특히 1905년 보고서는 『통상회찬』뿐만 아니라 『관보』에도 전재됐다. 관보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알리는 간행물이니, 일본 정부도 랑코도를 울릉도 부속의 섬처럼 인식한 것이다. 이는 무주지를 명분으로 일본 정부가 1905년에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케시마라고 명명된 독도를 관할하게 된 시마네현은 1906년에 조사단을 독도와 울릉도로 파견했다. 이때 조사단은 날씨 악화로 울릉도로 파견했다고 하나, 이는 구실이며, 그들의 본래 목적은 울릉도·독도 어업의 조사, 시마네현민을 울릉도로 이주시키는 조사 등이었다. 그들은 울릉도에 상륙해, 시마네현 관리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됐다고 울도군수에 전했다. 종래,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은 관민이 분노했지만 일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여태까지 생각되고 왔으나, 최근의 홍정원의 연구에 의해 한국 측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때에 일본은 다시 독도의 소속을 살핀 것 같으며, 통감부 동신관리국장이 울도군에 관한 조회를 내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내부는 1900년 칙령41호를 인용해 울도군을 설명했다. 칙령41호에 기재된 석도를 심흥택 보고서에 보이는 독도로 인식한 것이다. 1906년의 이의

제기는 한국이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유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아울러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임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내부가 울도군을 설명했을 때, 울도군의 크기를 “동서가 6리오 남북이 4리니 합 200여 리”라고 했는데, ‘합 200여 리’에 독도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남선경제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민국일보』, 『새韓民報』, 『제국신문』, 『필주자서전(弼鉢自叙傳)』, 『황성신문』.
- 김정호, 『대동여지전도』, 186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외무부, 『독도문제개론』.
-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 김수희,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호, 2011.
-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독도연구』 4호, 2008.
- \_\_\_\_\_,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
- \_\_\_\_\_,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_\_\_\_\_,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8호, 2010.
- \_\_\_\_\_,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도서출판 지성인, 2012.
- 박병섭·나이토 세이쥬, 호사카 유지 옮김,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 백인기·심문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와 해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역사공간, 2011.
- 송석하, 「고색 창연한 역사적 유적 울릉도를 찾아서」, 『국제보도』 제3권 1호(통권 10호), 국제보도연맹, 1948.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이종학, 『한일 어업 관계 조사 자료』, 사예연구소, 2000.
- 이혜원·이형근,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이 훈, 『조선 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_\_\_\_\_,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중판, 지성의샘, 2005.

-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 허영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호, 2006.
- 홍정원, 「러일의 울릉도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군사』 80호, 2011.
- 「告竹島一件事考」, 『善隣通交』 五.
- 『公文録』 内務省之部一.
- 『公文別録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 第一卷.
- 『官報』, 1905.9.18.
- 『軍艦新高行動日誌』, 1904.9.25.
- 内務省地理課, 『大日本國全圖』.
- 内務省地誌課, 『礮竹島覺書 完』, 1875.
- 内務省·太政官正院, 『日本地誌提要』
- 「對馬島宗家文書」, 古文書目録 #9143, 4366, 4013(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大藏省土地臺帳』.
- 大韓帝國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第2輯, 1910.
- 島根縣,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
- 島根縣教育會編, 『島根縣誌』, 島根縣教育會, 1923.
- 水路部, 『朝鮮水路誌』 第2版, 1899; 第2改版, 1907.
- 外務省, 記録 3532, 『鬱陵島に於ける伐木關係雜件』.
- \_\_\_\_\_, 記録 616-10,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書二』, 1902.
- \_\_\_\_\_, 『對州朝鮮交際取調書』, 1870.
- \_\_\_\_\_, 『日本外交文書』 第2卷·第3卷, 巖南堂, 1938.
- \_\_\_\_\_, 『朝鮮國交際始末内探書』, 1870.
- \_\_\_\_\_, 『朝鮮事務書』 第二卷(卷之四).
-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變遷』, 1953.
- 外務省通商局, 『通商彙纂』 234호(1902), 50호(1905).
- 朝鮮漁業協會, 「朝鮮海水業の実況(第拾回巡邏報告)」, 『大日本水産會報』 第210호, 1899.
- 『竹島紀事』, 『竹島之書附』

- 葛生修亮, 「韓國沿海事情」, 『黒龍』 제1권 제2호, 1901.
-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호, 1987.
-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書店, 2000.
- \_\_\_\_\_, 「一九〇五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호, 2011.
-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2007.
-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 梶村秀樹, 「竹島=獨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호, 1978.
-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호, 2008.
- \_\_\_\_\_, 「韓末期の鬱陵島·獨島漁業—獨島領有權の観点から—」, 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9.
-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호, 2010.
- \_\_\_\_\_, 「江戸時代の竹島=獨島での漁業と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호, 2012.
- 杉原隆, 「浅井村士族大屋兼助他一名の「松島開拓願」について」, 『郷土石見』 83호, 2010.
- 船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Ⅱ)」,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 2007.
- 宋炳基, 朴炳涉 訳, 『鬱陵島·獨島(竹島)歴史研究』, 新幹社, 2009.
-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 田中阿歌麻呂, 「隱岐國竹島に關する舊記」, 『地學雜誌』 200호·210호, 1905.
- 鄭秉峻, 「解放後韓國の獨島に対する認識と政策(1945-51)」,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5-2, 2008.
- 佐藤尙, 「内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 『古地図研究』 305호, 1999.
- 竹内猛, 「「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郷土石見』 87호, 2011.
-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 \_\_\_\_\_, 「17~19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 756호, 2001.
- \_\_\_\_\_,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_\_\_\_\_, 「竹島/獨島と石島の比定問題·再論」, 『テキストの解釈学』, 水声社, 2012.
-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国立国会図書館, 1994; 제2판(1996), 제3

- 판(2011).
- \_\_\_\_\_,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3호, 2000.
- \_\_\_\_\_,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 『東アジア近代史』 14호, 2011.
- \_\_\_\_\_, 「元禄竹島一件をめぐって 一付、明治十年太政官指令」, 『島嶼研究ジャーナル』 第2巻 2호, 2013.
-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2004.
- \_\_\_\_\_,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
- \_\_\_\_\_,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 2007.9.
- \_\_\_\_\_, 「最終報告にあたって「竹島の日」条例から二年」,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2007.
- \_\_\_\_\_, 「独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19호, 2008.
- \_\_\_\_\_, 「実事求是 第32回 ハンギョレ新聞電子版の外務省の固有の領土論批判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島根県, 2013.
- \_\_\_\_\_, 「実事求是 第34回 事実無根. 韓国の「独島の日」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島根県, 2013.

## 일본의 독도어장 편입을 통해서 본 식민지화 과정\*

### 흑룡회의 독도 침탈 기도와 '양코도 발견' 기록의 재검토

김 수 희

## 1. 머리말

에도(江戸)시대 독도의 일본 호칭은 송도(松島)였으나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이후 일본 해도(海圖)에서는 '리양코도'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독도가 '송도' 또는 '리양코도', '리랑코도'로 알려졌으나 1900년경 기록을 보면 리랑코도(Liancourt Rocks=독도)의 동일한 어원을 가진 '양코도'가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었다. 1901년 탈고된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 『한해통어지침』(1903년 출판)<sup>1)</sup>을 비롯한 『지학잡지』<sup>2)</sup>에는 '영국 지도에도 없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섬 양코도 발견' 기사가 등장하고 이 섬을 '한일어민들은 양코라고 부른다'는 기술이 나타났다.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1)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동경: 黒龍會, 1903.

2) 「日本海中の一島嶼 (ヤンコ)」, 『地学雑誌』 13-5, 1901.5, 「雜報欄」.

이 책은 2011년(2011.10.16~2012.10.15) 교육부 지정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엮음

##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Ⅴ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0일

엮은이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발행인 | 윤관백

발행처 |  **도서선인**

등록 | 제5-77호(1998.11.4)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1 꽃마루 B/D 1층

전화 | 02)718-6252 / 6257    팩스 | 02)718-6253

E-mail | sunin72@chol.com

Homepage | www.suninpub.co.kr

정가 48,000원

ISBN 978-89-5933-645-6 94910

978-89-5933-602-9(세트)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